

한 눈에 보는 주간 시황

도이치뱅크 우려보다 실적에 주목



SUMMARY

[투자전략]

고승희

02-768-4071

seunghee.ko@miraeeasset.com

- **시황:** 도이치뱅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은 낮아질 것. 주요 리스크 지표가 안정되어 있고, 벌금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오는 6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이에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되는 업종에 관심
- **이번 주 주목해야 할 3가지 경제지표 및 이벤트**
: 1) 미국 ISM서비스업지수, 2)삼성전자 잠정 실적, 3) 미국 고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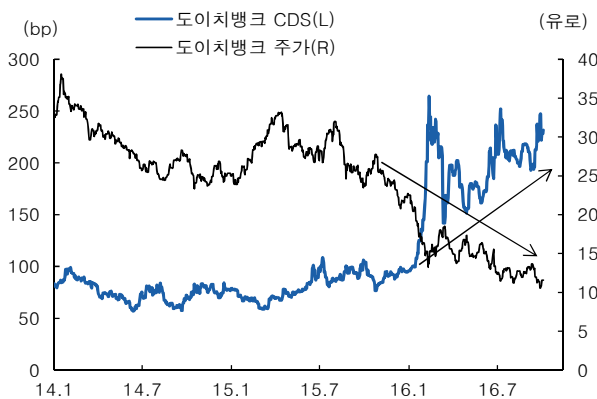
도이치뱅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은 낮아질 것

도이치뱅크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모기지담보증권(MBS) 불완전 판매로 벌금 140억 달러 부과 받았다. 이는 도이치뱅크가 적립했던 소송 관련 총당금 55억 유로를 크게 상회한 금액이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도이치뱅크의 주가는 급락세를 나타냈고, 신용디폴트스왑(CDS)은 상승했다.

특징적인 부분은 도이치뱅크 우려감이 확대되었음에도 주요 리스크 지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JPM EMBI Spread는 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도이치뱅크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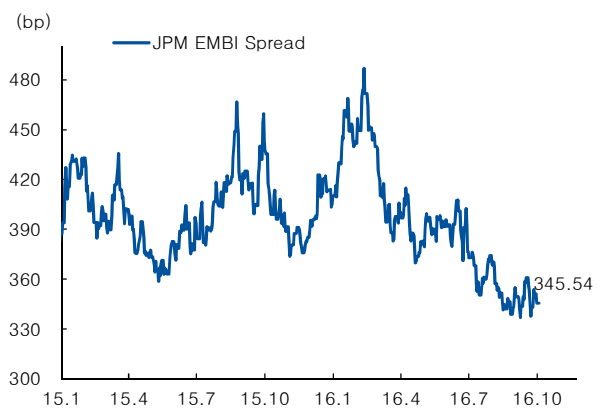
과거 MB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 주요 투자 은행들도 최종적인 벌금 규모가 낮아졌다는 점도 주목한다(골드만삭스, 최초 벌금 150억 달러, 최종 51억 달러). 도이치뱅크는 미국 법무부와 벌금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AFP 통신은 벌금 규모를 54억 달러로 낮추는데 거의 합의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도이치뱅크의 벌금 금액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도이치뱅크 자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향후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이다.

그림 1. 도이치뱅크 주가 하락 속 CDS 급등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2. 그럼에도 EMBI Spread는 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향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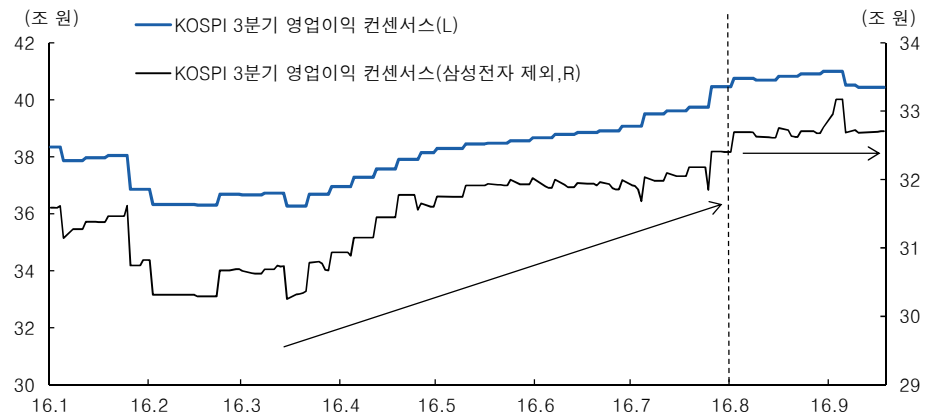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높아질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

8월 이후, KOSPI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향 조정되던 기업 실적 전망치가 8월을 기점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전년비 증가율이 10% 이상 되는 화장품, 기계, 운송, 은행, 조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 3. 8월 이후, KOSPI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횡보세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1. KOSPI 업종별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증감액과 전년비 증가율

업종	3분기 영업이익(십 억원)		증감액 (십 억원)	전년비 영업이익 증가율(%)
	현재	9월 1일		
KOSPI	40,186.2	40,910.4	-724.2	23.4
화장품, 의류	1,293.5	1,290.4	3.1	41.6
기계	678.8	662.8	16.0	39.3
운송	970.4	960.1	10.2	31.0
은행	3,359.6	3,337.8	21.9	15.7
조선	574.5	557.1	17.4	흑전
소매(유통)	842.0	832.4	9.6	-0.1
철강	1,365.9	1,313.7	52.2	-0.8
보험	1,009.4	982.9	26.5	-12.9
소프트웨어	796.6	790.2	6.4	-31.0
통신서비스	1,005.0	1,005.6	-0.6	-2.3
비철금속	431.0	431.8	-0.8	-0.3
호텔, 레저	308.5	312.4	-4.0	36.1
상사, 자본재	2,929.1	2,933.8	-4.8	229.7
미디어, 교육	286.1	292.0	-5.9	-5.9
건설	1,343.0	1,351.8	-8.8	흑전
건강관리	472.0	482.1	-10.1	-25.0
디스플레이	514.8	532.3	-17.5	-10.4
증권	643.2	673.7	-30.5	-3.7
IT하드웨어	321.0	357.5	-36.5	-30.6
유틸리티	4,691.8	4,728.6	-36.8	10.8
필수소비재	1,398.2	1,437.4	-39.2	-33.1
화학	2,764.8	2,806.4	-41.6	31.5
에너지	1,298.1	1,354.5	-56.5	79.2
IT가전	333.4	404.5	-71.0	-13.7
자동차	3,748.5	3,821.4	-72.9	-4.8
반도체	8,531.4	9,005.4	-474.0	-5.9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주) 음영부분은 9월 대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전년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두 자리수인 업종

이번 주 주목해야 할 3가지 경제지표 및 이벤트

: 1) 미국 ISM서비스업지수, 2)삼성전자 잠정 실적, 3) 미국 고용보고서

1. 미국 9월 ISM서비스업지수(10/5일)

미국 9월 ISM서비스업지수 컨센서스는 53.0P로 전월 51.4P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 8월 ISM서비스지수는 시장 예상치(54.9P)를 큰 폭으로 하회한 51.4P를 기록. 기업활동, 생산, 고용 등 주요 지표가 모두 부진. 그러나 9월 마켓 서비스업 PMI가 시장 예상치(51.2P)를 상회한 51.9P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9월 ISM서비스업 지수는 재차 개선되는 모습 나타날 것으로 예상

2.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10/6일)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50.9조 원, 7.6조 원. 매출액은 전년비 1.6%감소, 영업이익은 전년비 3.1%개선되는 수준.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의 영향으로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이와 더불어 3분기 원화 강세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2분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원/달러 3분기 평균치:1,120.3원, 2분기 평균치 1,163.3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3. 미국 9월 고용보고서(10/7일)

미국 9월 민간고용 컨센서스는 전월비 17.0만 명 증가 예상. 전월 12.6만 명 증가 대비 개선 폭 확대. 지난 8월 고용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각각 1.4만 명, 0.6만 명 감소했고, 전문직 일자리 증가 수가 큰 폭으로 감소

그러나 NAHN주택시장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9월 마켓 PMI 서비스지수가 51.9P를 기록하며 전월 51.0P대비 개선되며 서비스업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됨. 더불어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가 20만 명 중반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9월 고용보고서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할 가능성에 무게

10/3~10/7일 경제지표 발표 일정

일자	국가	경제지표 및 이벤트	기간	단위	예상치	이전치
10월 03일	미국	ISM제조업지수	9월	P	50.3	49.4
		ADP 취업자변동	9월	만 명	16.3	17.7
10월 05일	미국	ISM서비스업지수	9월	P	53.0	51.4
		무역수지	8월	십억 달러	-39.2	-39.5
	유로존	소매판매	8월	%, YoY	1.5	2.9
10월 06일	한국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3분기	-	-	-
		민간부분 고용자수 변동	9월	만 명	17.0	12.6
10월 07일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	9월	%, YoY	2.6	2.4
	중국	외환보유고	9월	십억 달러	3185.0	31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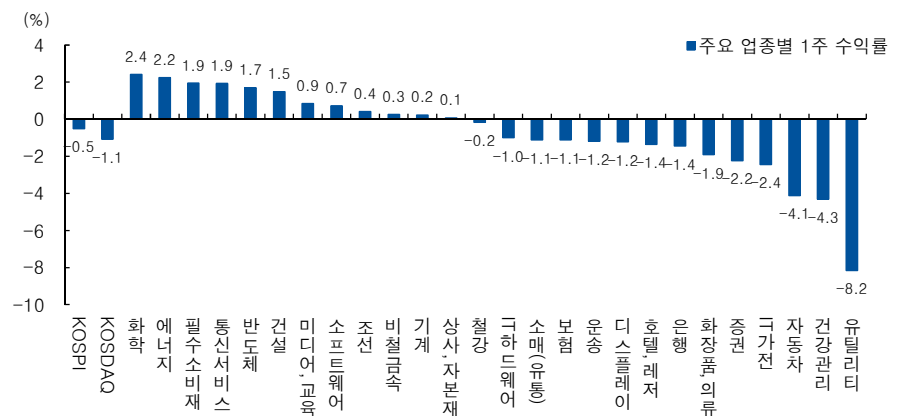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주간 Review: KOSPI -0.5%, KOSDAQ -1.1%

KOSPI 주간 -0.5%하락 마감. 유럽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가 미국 MBS 부실판 매로 140억 달러의 벌금 부과. 시장에서는 도이치뱅크의 구제금융 이야기가 나오는 등 유럽 은행주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짐.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외국인 수급 위축되며 소폭 하락.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 에너지, 필수소비재가 강세를 나타낸 반면 유틸리티, 건강관리, 자동차는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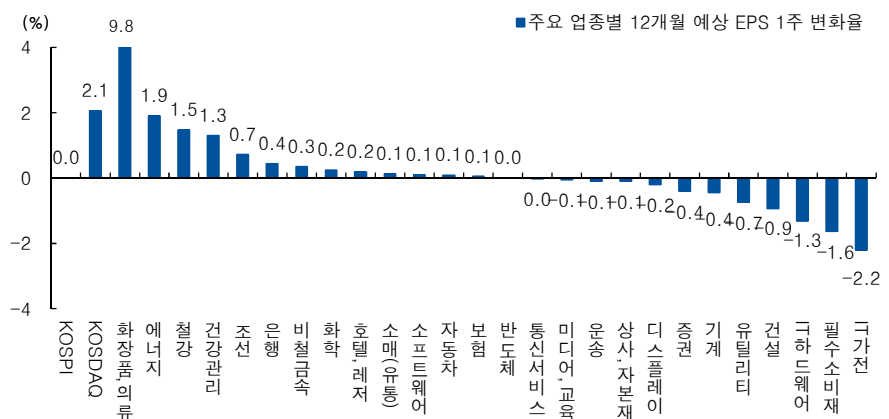
글로벌 리스크 지표는 도이치뱅크 우려 속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러나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특히 신흥국의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EMBI Spread는 전주 대비 2bp 상승한 345.5bp.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신흥국 리스크 지표가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시장 조정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한편, OPEC의 산유량 감축 합의 소식으로 국제유가는 8%이상 급등세를 나타냄

1주일 업종별 수익률: 화학, 에너지, 필수소비재 강세. 유틸리티, 헬스케어, 자동차 약세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업종별 12개월 예상 EPS 1주 변화율: 화장품의류, 에너지, 철강 상승. IT가전, 필수소비재, IT하드웨어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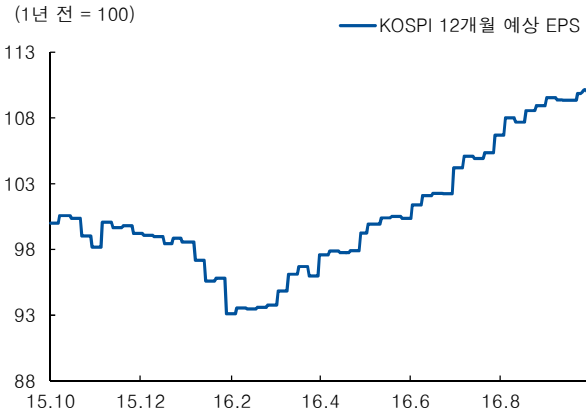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PS, PER Review: KOSPI EPS 주간 변동 없음, 12개월 예상 PER 1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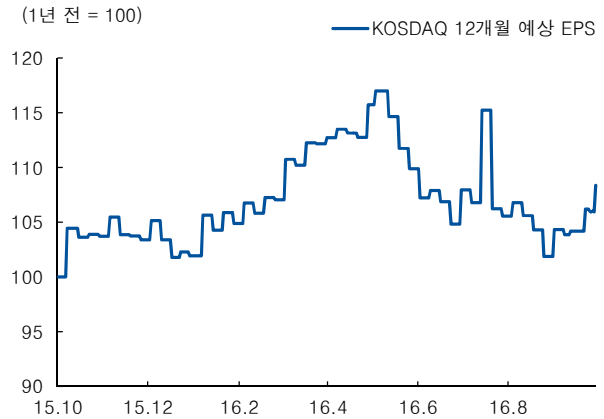
수급 동향: KOSPI 외국인 866억 순매도, 기관 375억 순매도

KOSPI 12개월 예상 EPS 추이: 주간 변동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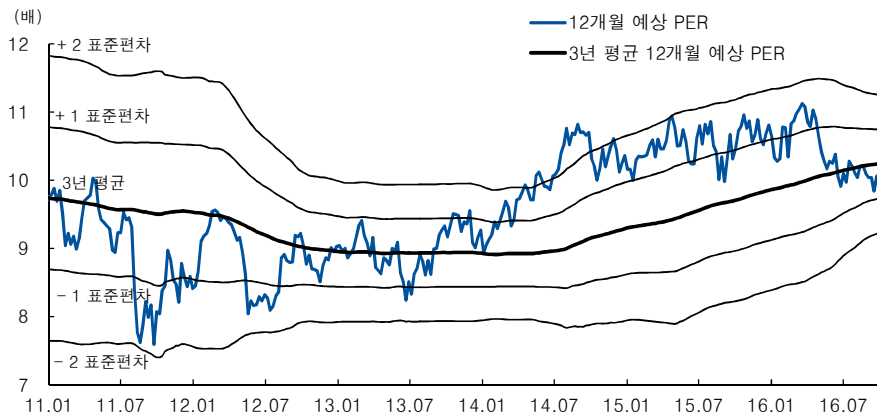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KOSDAQ 12개월 예상 EPS 추이: 주간 2.1%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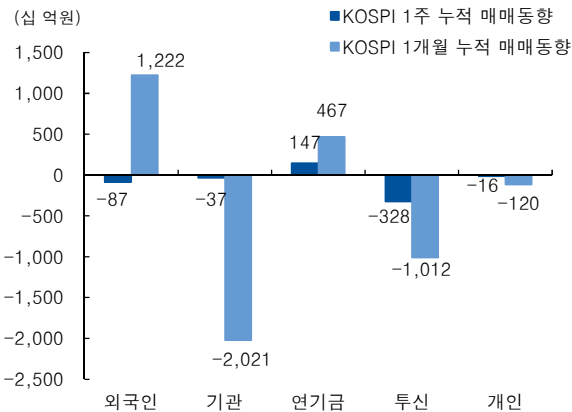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KOSPI 12개월 예상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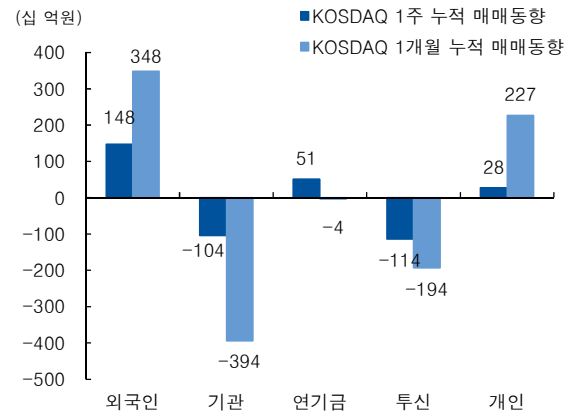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KOSPI 주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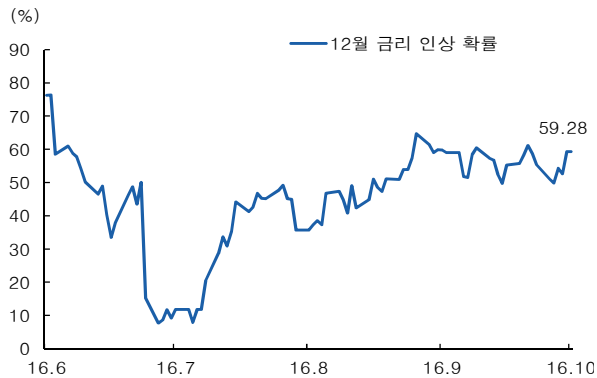
KOSDAQ 주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자료: Wisefn,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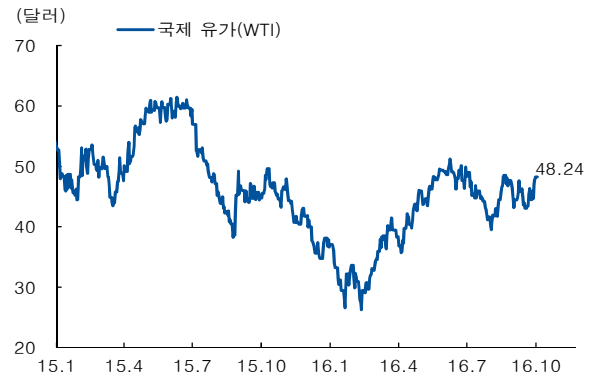
주요 Risk Factor

미국 12월 금리인상 확률 전주 대비 4%p 상승한 5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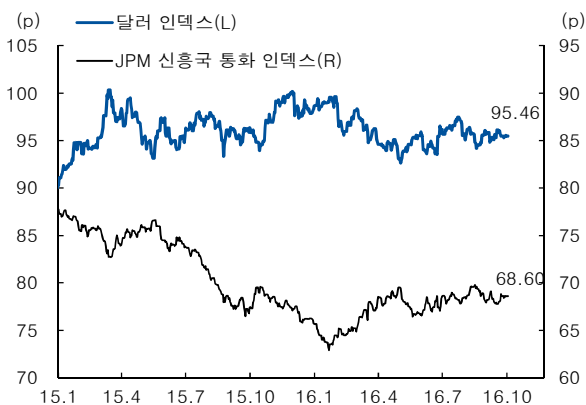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OPEC 산유량 감축 합의 소식으로 국제유가 전주 대비 8.5%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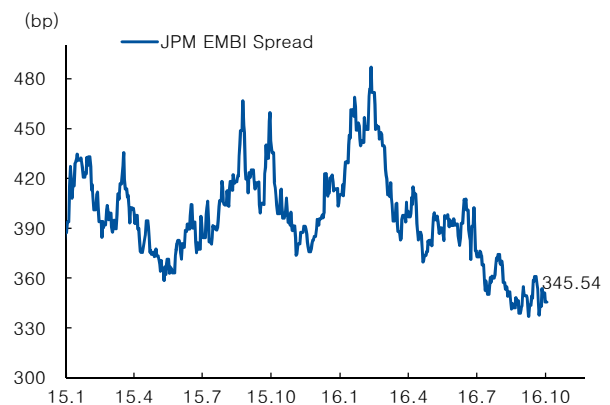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외환 시장은 달러와 신흥국 통화 모두 소폭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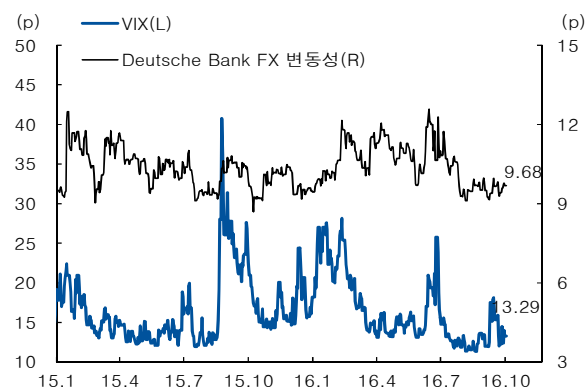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EMBI Spread 전주 대비 2.4bp 상승하며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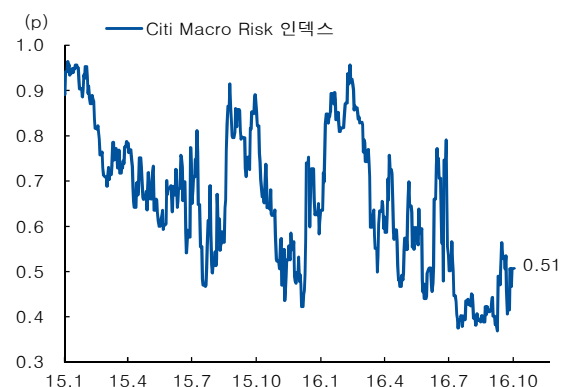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VIX, 외환시장 변동성 전주 대비 모두 소폭 상승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iti Macro Risk 전주 대비 0.09P 상승한 0.51P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